

# 향기로운 예물

## ♣ 심일조현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정태진(노윤경) 김선희 강은미(김선주) 김기수 김영애 김재인(이강우) 김현욱 박복례 박순웅(이승예) 방석태(차옥자) 유현호(이영미) 윤순한(민국희) 이상희 이종문 정상례 채만기(장은주) 최상걸(이미향) 최성현(윤정자) 최규경(김미영) 황영욱

## ♣ 선교현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선희 강은미(김선주) 김병율(이영숙) 김영애 김재인(이강우) 김정자 김태한 김현욱 박복례 이경자(주경덕) 이승예(박순웅) 이종문 홍유경(최인호)

## ♣ 감사현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레 김병율(이영숙) 김정연B(강준식) 김종익(박애순) 김춘화 김태수 박부웅(최귀남) 박순자(이동수) 박승현 박복순 염영분(천세력) 유소정(김지한) 이명희(문영원) 이미자(김현성) 이종문 장윤주(김현진) 전순봉 채명엽(서시철) 최성현(윤정자) 최순재 하세현 한공순 홍유경(최인호)

### ♣ 입천번제현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성 김민준 김준구 박민서 박서광 박순자 박준홍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양영욱 양일석 이강우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자 이상희 이소은 이승예 이아른 이복남 정승현 정해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욱 무 명

## ♣ 월정현금

홍유경(최인호)

## 주간 성경연구

48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시 편 34장 11절 ~ 22절			
월요일	시 편 35장 1절 ~ 18절	목요일	시 편 37장 1절 ~ 11절	
화요일	시 편 35장 19절 ~ 28절	금요일	시 편 37장 12절 ~ 26절	
수요일	시 편 36장 1절 ~ 12절	토요일	시 편 37장 27절 ~ 40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시무장로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제 최성현 윤영준 박종삼 최상걸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정태진	
	전 도 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김선희	
찬 양 대	지 위 자	할 렬 루 야 : 김한나 호 산 나 : 김안나 시 은 · 에 덴 : 최원지 엔 젤 :	
	반 소 자	오르간	심혜운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루트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김정아	
선 교 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수 리 남 : 안석철 이성욱 미 국 : 김다니엘 미 국 : 최국희	이 집 트 : 김신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모 잠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맥 시 코 : 김흥기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즐거운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찰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2. 11. 20.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시편 65편 8~13절		설교: 이진우 목사

추수감사절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절기입니다. 영국의 청도교들이 처음 뿌린 곡식을 추수하여 감사절을 지킨 것은 성경적이었으며 저들의 감사를 한층 더한 사건이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만들 수도 없고 자라게도 못합니다. 오직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을 할 뿐 결실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가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며 협력하여 선이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럼 성도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1.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감사제는 아담의 후손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흐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민족은 고유의 명절에 햇곡식과 과일을 잘 차려 조상에게 차례를 지냅니다. 따뜻한 햇볕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분은 아무런 힘도 없는 조상이 아니라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물을 주십니다. 감사에 기적이 있고 감사할 때 삶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의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매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만 돌렸습니다. 특별히 신약은 “축사 하시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이곳에 먹을 것이 없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다 하셨습니다. 여기 “축사” 라는 말은 “울로게센” 인데 이는 “찬송하다, 경외하다, 감사하다. 축복하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하시고, 감사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했다니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남자만 오천 명이 먹고도 열두 바구니나 남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찬송이라는 헬라어는 “히논” 인데 이는 감사의 찬송, 영광의 찬송을 뜻하는 말입니다.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자유를 잃고 괴로움이 있는 바울과 실라가 무슨 감사의 제물이 있어 찬양을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과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 옥의 문이 열리고 매일 것이 풀리며, 간수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어 쉬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이러한 감사는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귀한 절기를 지킬 때에는 기쁨과 온 정성을 바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실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헌신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보이는 모습만 있고 마음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이 오늘 이 시대에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오직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기쁨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부담되고, 그저 내 위치와 상황에서 보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직분자이며 직책이 있고, 하라고 하니 하는 영혼 없는 행함이 아니라 실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두 렘돈 끝 한 고드란트를 더 크게 보셨습니다. 그것은 값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이며 정성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어서 우리의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림에 힘쓰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더욱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많은 수확을 올리는 해로 축복이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8 - 48

2022. 11. 27.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추소서” [말라기 4장 2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b>담 임 목 사</b> Senior Pastor	<b>이 진 우</b>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 이 지: www.sunghyeon.or.kr



[1부] 오전 7시	사회: 강 영 성 장 로
[2부] 오전 10시	인도: 이 진 우 복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복 사
묵 도 _____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찬 양 찬송가 382(로432)장 다 같 이  
(Praise)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성 경 이 문 율 기 12장 1~12절[구약p.772] 인 도 자  
(Scripture)

설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오해                      이진우 목사  
(Sermon)

새 신 자 환 영 \_\_\_\_\_ 다      같      이  
(Introduce new comer)

##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축도 이진우 목사  
(Benediction)

※우리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기드칭

##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0:00 본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0:00 로템나루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화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27일(주일)~28(월) 교회김장

이 번 주	다 음 주
* 찬양위원회 모임 찬양예배후/찬양대연습실 * 남전도회 총회(3부 예배 후)	

- 결혼: 강평화 군과 양지은 양(강영성 장로, 신화순 권사 총성/소사) 결혼 예식이 12월 3일(토) 낮 12시 포포인츠 바이 셰라톤에서 있습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혹은 구로디지털단지역 환승 센터 정류장 하차 200M)

	성 단	차	중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박진숙 집사	심혜원 성도	오세균 성도 이춘취 권사	임만순 장로	사람2 개봉2 개봉3	
떡	오세균 성도, 이춘취 권사					
다음주	이경순 권사	심 찬 청년	최정규 집사 전순봉 권사 이월숙 집사	박권제 장로	사람1 고척11	드보라 여전도회

순서	1 부		2 부		3 부		한 양 예 배		수요기도회
12월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기 도	기 도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1주(04일)	담 임 목 사	김종진 집사	배경철 장로	김병을 장로	김병을 장로	장윤주 집사	이미향 권사		
2주(11일)	최기훈 장로	김형국 집사	임민순 장로	최기훈 장로	최기훈 장로	김종진 집사	이강우 권사		
3주(18일)	배경철 장로	방원식 집사	박근태 장로	배경철 장로	배경철 장로	홍정훈 집사	강은미 권사		
4주(25일)	임민순 장로	채만기 집사	최현철 장로	임민순 장로	담 임 목 사	김형국 집사	민옥희 권사		
예 배 안 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